

AI 검증 클러스터 대선 공약 제안하고 구축 끝났다는 광주시

광주시, 특정 기업 이익 아니라 지역에 도움되는 공모사업 집중 입장
AI업체들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경쟁 속 선택적 집중 납득 어려워”

광주시는 ‘정부 공모사업 외면한 광주시’ 보도(5월 13일자 광주일보 5면)와 관련, 이번 정부 공모사업은 AI집 시험·검증 1단계에 해당해 광주시의 고도화 사업과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광주시는 최근 21대 대선 공약으로 AI집 검증 클러스터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대선 공약과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은 13일 시청기자실에서 차담회를 열고 “광주시는 특정 공모에 참여하는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모 사업에 한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비 전액 공모사업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가 필요하면 국채를 내더라도 지역에 필요한 공모사업에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AI 반도체 등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팹리스(반도체 설계기업) 맞춤형 인프라 사업 등에 공모하지 않게 된 배경을 내놨다.

광주시는 AI 1단계 국산 AI 반도체 시험·검증 사업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고도화 진행됐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AI반도체 (NPU) 실증과 보드·서버 단위의 시험·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엔 대구와 판교로 선정된 팹리스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광주시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산업부의 반도체 검증 지원사업은 칩 단위 검증 사업이고 광주시가 추후 공모에 나설 과학기정보통신부의 AI시험검증 사업은 보드·서버 단위 검증으로 지원 단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올해 대선 공약 과제로 AI반도체 팹리스 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기존에 구축이 끝난 사업이라고 해놓고 대선공약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또 현재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를 앞두고 타 지역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적 향상을 두고 선택적 집중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광주지역에 들어선 AI업체 관계자는 “광주시가 현재 질적 향상을 이루기 보다는 양적 확대에 집중해 AI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된다”면서 “또 산업부의 AI지원 검증 사의 경우 단순 칩 검증 지원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타 지역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공모사업을 따와 지역의 AI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산업부 주관 ‘2025년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의 하나인 ‘미래자동차 고효율 전장 핵심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35억원(국비 포함)을 투입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빛그린국가산단에 ‘미래차전장부품개발센터’를 설립, 최첨단 부품 시험·평가·개발장비 등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48V(볼트) 체계의 고성능 전자기, 최첨단 센서 탑재 인공지능(AI) 융합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 고효율 전장부품의 개발을 위한 지역 자동차 산업에 힘이 될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바람에 떨어질라” 노후 간판 철거
13일 광주시 북구 소속 직원들이 문흥동의 한 아파트 상가 외벽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5월 전남서 블루 위케이션 저렴하게 즐기세요”

‘전남 방문의 달’ 기념 반값 할인
전남도는 ‘전남 방문의 달’인 5월, 여수와 순천, 나주 등 전남 8개 시·군에서 ‘위케이션(Work+ Vacation)’을 즐기는 관광객에게 1박 당 10만원의 숙박료 할인을 나낸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방문의 올해 여수와 순천, 나주, 고흥, 함평, 해남, 진도, 구례 등 8개 시·군에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위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가장 먼저 위케이션 프로그램을 선보인 여수시는 공유오피스와 숙박시설이 여수의 섬과 바다를 한눈에 보이는 곳에 위치해 일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여수 관광지인 해상케이블카와 여수 예술랜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순천은 순천만국가정원을 배경으로 한 정원 위

케이션이 마련됐다. 글램핑 타입의 ‘개빈하우스’와 한옥 스테이 ‘순천만에코촌’ 중 선택이 가능하다. 개울길 마실, 정원해설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나주에선 고즈넉함을 맛볼 수 있다. 나주향교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구옥을 위케이션 공간으로 꾸며다. 나주읍성 전통민력거 로컬트립을 함께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고흥에선 마리안느와 마가렛 기념관인 나눔연수원을 중심으로 위케이션을 운영하며, 고흥 해안가 마을의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례에서는 유니크베뉴로 지정된 쌍산재에서 한옥체험과 함께 지리산 주변의 리조트, 다케이지리 산호텔 등에서 업무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진도는 삼별초 공원과 북놀이 체험, 커피 체험

으로 전통과 현대가 결합한 위케이션을 선보인다. 삼별초의 역사를 담은 공원에서 전통 한옥 숙박을 체험할 수 있다.

해남 오시아는 캠핑장에서 캠핑가 위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바다를 배경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제공하고 무료 자전거 대여, 카약 등 체험이 가능하다.

함평에선 돌머리 해수욕장 캠핑장과 리조트를 활용해 바다 경치를 감상하며 근무할 수 있다.

전남 블루 위케이션은 주말을 제외한 2박3일, 3박4일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이다. 1박당 10만원,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 외 지역의 기업 재직자와 1인 사업자 및 정부·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전남 관광재단 누리집이나 전남 블루위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전남도, 황금일반산단 2단계 부지 분양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여수 산단 접근성 용이...2026년 입주 가능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에 조성 중인 황금일반 산업단지 2단계 부지가 분양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황금일반산단은 광양시 황금동 일원에 2926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111만 5000㎡(33.7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1차금속과 금속가공,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금공업 등 신소재 산업이 들어서기 좋은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다.

이번 산업용지 분양은 2단계 사업 준공을 앞두고 시행된다. 2단계 용지는 올해말 준공 예정으로 2026년 입주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3.3㎡당 97만 원선이다. 1단계 용지는 계약 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1단계 산업용지는 60% 가량이 분양돼 기업들이 순차 입주 중이다.

황금일반산단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중심부

에 위치해 있다. 또 철강, 석유화학 기업들이 많은 여수 국가산업단지와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국내 최대 종합항만인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와 가깝고, 광양항 서측 배후도로를 통해 광양항, 남해 고속도로, 영암-순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과 세제 감면 혜택도 있다. 황금산단 입주 기업에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20억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는 기업당 50억원 한도 내에 입지 보조금, 시설 보조금,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6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분양 설명회가 열린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관광공사, 사적지 등 소개

영국 현지 인기 인플루언서에게 광주주요 관광지와 5·18유적지를 아우른 광주관광상품이 소개됐다.

13일 광주관광공사에 따르면 10일부터 11일까지 영국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 3명을 초청해 광주의 주요 문화관광지와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유적지를 소개하는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2025년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광주시와 광주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의 협업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초대된 영국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 기반 총 90만여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여행 인플루언서다. 이들은 광주와 주변 도시를 방문해 K-관광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들은 첫날인 10일에는 전일빌딩245를 찾아 5·18 기념공간을 둘러보고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소설 속 사적지를 직

접 걸으며 5·18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직접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대한민국 최대 문화 발전소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지역작가 전시를 관람하고 활력넘치는 동명동 거리 탐방, 미디어아트 야간관광 콘텐츠 ‘빛의숲’ 등을 체험했다.

11일에는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선교사 사택과 수제막걸리 체험, 이이남 스튜디오, 팽관마을 등 광주의 예술·레트로 감성이 어우러진 공간을 탐방했다.

광주시는 광주역·문화적 매력을 깊이 있게 경험한 이들이 광주가 가진 고유의 감성을 영국을 포함한 글로벌 MZ세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 광주의 관광매력을 실시간으로 글로벌 시장에 노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작된 콘텐츠는 6월 4일 한국관광공사가 개최되는 영국 런던 테이트 모던 K-관광로드쇼를 통해 현지 여행업계와 미디어에 배포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40

1985-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